

고려해운

중국, 동남아, 인도연결 서비스

고려해운(대표 박정석)은 7월29일부터 중국,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연결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했다.

NIX(New India Express)로 명명된 이번 신규 노선은 대만의 Cheng Lie Navigation Co., Ltd.(이하 'CNC')와 공동운항 하는 노선으로 고려해운이 사선 KMTCC PORTKELANG호, KMTCC SHANGHAI호(이상 1,860TEU급) 등 총 4척을, CNC가 한 척을 투입하여 주 1항차 정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고려해운의 KMTCC PORTKELANG호가 7월 29일(일) 부산을 출항하면서 시작되며, 서비스 루트는 Xingang - Qingdao - Busan - Hong Kong - Shekou - Singapore - Port Klang - Nhava Sheva - Port Klang - Singapore - Hong Kong - Busan - Xingang이다.

고려해운 관계자는 “이번 신규 항로 서비스는 최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장과 칭다오항을 동남아시아/인도까지 연결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성해운

일본 토야마신항에 기항

남성해운(대표 김영치)이 처음으로 일본 토야마신항에 기항하는 등 동 지역의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 항로의 선박 기항순서는 부산-니가타-토마코마이-하코다테-토야마신항-부산-광양-



다렌-칭다오-부산 등이다. 일본측의 최종 기항에 토야마신항을 추가해 부산, 광양, 다렌, 칭다오 사이에 직항 서비스를 실시한다.

제1편은 Star Apex호로 토야마신항에 7월24일 기항했다. 토야마신항에서 중국 직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선사는 간바라기선이 처음이지만, 한중 취항선사가 배선하기는 남성해운이 처음이다.

한편, 남성해운이 난징/샤먼-일본(부산 경유) 구간 컨테이너 서비스를 8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난징-일본 구간 서비스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난징 항만에 기항하며, 샤먼-일본 구간 서비스는 매주 일요일 샤먼 항만에 기항한다. 난징/샤먼발 화물은 직접 부산으로 보내진 후 일본으로 운송되어, 운송 기간이 약 3일 단축 된다고 남성해운은 밝혔다.

지금까지 난징/샤먼발 일본행 화물은 지선 서비스로 상하이를 걸쳐 일본으로 운송되었다.

대한해운

이 회장 경제리더대상 수상

대한해운(주)(www.korealines.co.kr) 이진방



회장이 6월26일 월간조선사가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업평가가 공동후원한 2007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환경경영 부문) 2007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을 수상했다.

월간조선은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환경 속에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경영기법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인을 발굴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경제리더 24인을 선정,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진방 회장은 IMF금융 위기 발생시 도산위기에 직면한 대한해운을 회생시키고 2003년 사장 취임 이후 연속 흑자경영을 유지하여 우수한 세계 해운선사와 견줄 수 있는 경쟁력있는 우수한 해운선사로 발전시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

지난 1월 제25대 한국선주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 회장은 현재 한국물류학회 부회장, BIMCO 이사회 한국대표, 대한민국 해양연맹 부총재, 한국선급 이사 등을 겸임하면서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한국 해운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기업을 건전하게 성장시켜 사회에 공헌하고, 책임과 윤리경영, 인화단결'의 경영이념 하에 인재양성을 위한 발전기금을 지원함은 물론 해성사회윤리문제연구소 및 해로회에 학술지원을 함으로써 해운산업진흥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고 또한, 매년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왔다.

이진방 회장은 2003년 사장 취임 이후 영업조직의 확대 및 개편, 신 영업시스템 개발, ERP 시스템 UPGRADE,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여 영업능력과 경영환경, 재무구조를 개선시켜 2006년도 매출액을 2003년도 대비 약 200% 증가 시켰고, 2003년도의 부채비율 837%를 2006년에는 167%까지 감소시키는 등 대한해운 창사이래 최대의 경영성과를 이룩했다.

대한해운은 1994년 국내 최초로 BVQI의 ISO 9001:2000 인증서와 한국선급 ISM을 동시에 취득하였고, 2006년 'ISO 14001:2004'(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에 이어 2007년에는 'K-OHSMS 18001:2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보강함으로써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경영체제의 확립으로 현재까지 10여 년간 LNG 선박의 무사고 운항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10년 평균 0.61%의 낮은 이재율을 기록함으로써 대한해운의 무사고 운항 기술성을 대내외에 입증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 삼성전자의 윤종용 부회장, LS그룹의 구자홍 회장 등 기업인과 은행장, 지방자치단체장, 경제단체장 등이 수상하였다.



대림H&L

가스선 대한해운에 매각

대림H&L(대표 기의석)이 대한해운에 7만 8500cbm급 가스선을 7월26일 매각한다고 7월18일 공시했다.

대림H&L은 7월18일 이사회를 열고, 가스선 MT Gaz Energy호를 매각기로 결정했다. 동사는 이번 선박 매각은 경영상의 이유라고 밝혔다. 매매가는 465억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내용) △처분 목적물 : 선박(MT Gaz Energy) △처분 목적물 규모 : 78,500cbm △처분 가액 : 465억원(자산총액 대비: 55.9%) △거래상대방 : 대한해운(주) △처분목적 : 경영상의 이유 △처분예정일: 2007년 7월26일 △처분방법 : 직접보유자산의 처분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7년 7월18일

동진상선

인천-일본 KEIHIN 서비스

동진상선(대표 오용환)이 오는 8월 6일부터 인천발 일본의 KEIHIN 서비스를 개시한다. 서비스는 인천기점 주 2항차(월, 목), 부산기점 주 3항차(화, 금, 토)로 실시한다.

동진상선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경인지역의 물류비 절감 효과는 물론 자사의 노선과 연계하여 모지, 하카다, 도쿠야마, 히로시마 지역으로의 서비스도 가능하게 되어 해주들에게 다양한 노선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운송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동진상선은 흥아해운, 동남아해운, 동영해운 등 한일항로를 취항하는 선사들과 연계하여 이번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동일 노선에는 450teu~460teu급 컨테이너선 3척이 투입될 예정이다.

운항선박은 동진상선의 450teu급 다신(DAXIN)호, 동영해운의 460teu급 카리나스타(Carina Star)호, 동남아해운의 450teu급 스카이호프(Sky Hope)호가 투입될 예정이다.

(주)봉신

벌크선 1척 124억원에 처분

(주)봉신(대표 정인현)이 노후벌크선 1척을 124억원에 에스원마리타임에 매각한다고 7월11일 공시했다.

처분물건은 1984년 건조된 OCEAN DUKE호로, 총톤수는 1만5,575톤, 재화중량톤수는 2만 6,666톤으로 월드와이드노선에 투입되어 왔다.

봉신은 이와 관련 7월1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8월1일 에스원마리타임에 인도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앞서 봉신은 7월1일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국내외 자원개발사업 및 동 제품의 운송 등과 관련 정관변경안을 채택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봉신은 에콰도르 현지법인을 인수하여 2개의 개발광구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에콰도르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봉신은 기계주물사업부와 해상운송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6년에도 6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고, 올해 매출액 1800억원, 영업이익 125억원을 목표로 잡았다고 밝혔다.

C&그룹

인도네시아 조선사업에 진출

C&그룹(회장 임병석)의 조선사업 계열사인 C&중공업이 인도네시아 조선사업에 진출한다. C&중공업은 7월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인도네시아 DKB조선소와 선박 건조 및 수리사업을 영위할 조인트 코퍼레이션 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DKB조선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국영조선소로 현재 선박수리 및 신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DKB조선소는 인도네시아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최근 방한해 이날 C&중공업과 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상호 협의에 따라 향후 5년내 DWT 5만톤급 선박을 연간 6척 건조 가능한 조선소 가동 및 장기적으로는 VLCC급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물적·기술적인 자본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편, C&그룹의 선박 전문 매니지먼트 회사인 케이씨라인(주)(대표 임갑표)이 미얀마 연방 최초로 민간 자본으로 설립되는 해운회사에 경영 노하우 전수 형태로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임갑표 케이씨라인(KCL)대표는 7월23일 한강 뷔페유람선상에서 미얀마 CB뱅크의 관계사인 KMA쉬핑의 U KHIN MAUNG AYE(우 킨 마웅 에이)회장과 양사간 투자협정(MOA)을 체결하고 해운물류 사업을 비롯해 양사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력을 다하기로 했다.

KMA쉬핑은 미얀마 최초의 민간 자본 설립 해운회사로 최근 현지 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마쳤고 이르면 오는 11월께 1만DWT급 이상의 3척의

벌크선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KMA쉬핑은 벌크화물 중심으로 미얀마 수출입물을 운반한다.

케이씨라인은 KMA쉬핑에 자본출자는 없이 해운회사 설립 및 운영 등 벌크선사 관리 전반에 관한 해운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케이씨라인은 경영 노하우 전수에 따른 대가로 발생하는 순이익의 40%를 획득한다.

KMA쉬핑의 오너인 우 킨 마웅 에이 회장(45)은 현재 미얀마 민간 두번째 규모의 은행인 CB뱅크의 회장이며, 우리나라의 상공회의소로 비견되는 CCS (CENTRAL Co-OPERATIVE SOCIETY)의 총재로 활동중이다. KCL은 지난 1998년 설립된 국내 유수의 선박 안전관리 및 매니지먼트 전문 회사로 현재 총 20척의 선박관리 및 선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C&그룹 계열사이다.

SK해운

창립25주년 기념식 거행

SK해운(대표 이정화)은 창사 25주년을 맞아 6월28일 워커히 VISTA HALL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정화 사장을 비롯한 본사 임직원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기념식은 창사기념행사, 자축연 및 석식의 순서로 거행되었다.

창립기념축사에서 이정화 대표는 “지난 25년간 SK해운이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들의 지대한 공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 System 및 구성원의 Globality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B/M 개발을 통한 다양한 Portfolio 전략을 구사하여 2nd To-be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SUPEX 수준의 Global 해운선사로 도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STX팬오션

중국 현지 합작물류법인 설립

STX팬오션(대표 이종철)이 중국 최대 물류기업인 시노트랜스(Sinotrans, 中國外運)그룹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중국내 물류사업 전개를 본격화한다.

STX팬오션은 최근 텐진 웨라톤 호텔에서 이종철(李鍾哲) 사장, 타오수운(陶素云) 시노트랜스 그룹 부총재, 왕슈쥬(王述祖) 텐진시 부주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합작 물류법인 출범식을 가졌다.

STX팬오션과 시노트랜스가 6:4의 지분을 각각 투자한 이 회사의 이름은 ‘천진 STX-시노트랜스 로지스틱스(Tianjin STX-SINOTRANS Logistics Co.,LTD)’, 중국 현지법인명은 ‘천진 세운물류유한공사’이다.

이로써 STX팬오션은 지난해 칭다오에 설립한

‘청도세등극운물류유한공사’, ‘청도세등국제물류 유한공사’ 2개의 물류법인에 이어 텐진에도 중국내 물류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텐진은 연간 2.6억톤의 화물(2006년 기준)을 처리하는 세계 6위 항만이자 STX팬오션 컨테이너 운송의 거점 지역으로, STX팬오션은 파트너사인 시노트랜스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텐진항과 연계한 육상운송, 포워딩(Forwarding), 통관 등의 물류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STX팬오션은 이번 텐진 물류법인 설립을 계기로 세계 최대 화물운송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물류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렌, 상하이, 닝보, 선전 등의 중국 전역으로 물류거점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중국내 현지 거점을 적극 활용하여 복합물류 및 3자 물류 사업으로까지 사업영

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종철 사장은 이날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텐진은 STX그룹 글로벌 전략의 핵심 지역인 중국의 관문이자 무역·해운·물류의 중심지”라고 말하고 “이번 시노트랜스 그룹과의 합작 물류법인 설립을 계기로 고객서비스 개선은 물론 해상과 육상 운송을 연계하는 물류 전 분야로 양사간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금상선

한일항로 서비스 강화

장금상선(대표 정태순)은 한일항로 일부 서비스의 투입선을 변경, 대형화하는 등 동 항로의 서비스를 강화했다.

부산-일본해 서비스에서는 현행의 210TEU급 Golden Voyage호 대신 새롭게 332TEU급 Jin Man Hai호를 투입했다.

이 항로의 선박 기항순서는 부산-니가타-나오에쓰-츠루가-부산 등이며, 변경되는 서비스는 7월2일 부산 출항편부터 시작되었다.

광양·부산-하카타서비스에서는 116TEU급 SS Ulsan호 대신 272TEU급 Sinokor Masan호를 투입했다. 이 선박의 기항지는 부산-광양-이요미시마-미즈시마-부산-광양-시모노세키-하카타-히비키-부산 등이며, 서비스는 7월3일 광양출발편부터 시작되었다.

한진해운

선박안전 문화혁신 캠페인

한진해운(대표 박정원)은 6-7월 전 선박에 대해 ‘ARE YOU SAFE?, I'M OK!’ 라는 타이틀로



선박안전문화혁신 Campaign을 실시하였다.

동 캠페인은 선박 안전결의문 낭독 및 안전 결의 대회 실시, 선박별 취약부분(Weak Point) 식별 및 개선 위한 안전의 날 행사 실시, 선내 안전심볼, 표지, 마킹, 설비의 일체정비, 인명안전을 위한 작업별 안전가이드 공모 등을 실시했다.

또한 행사의 친근함을 주기 위해 안전 상징물(Safety Character)과 안전노래(Safety Song)를 제작 한진해운 전 선박으로 배포, Campaign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김명식 해사그룹장은 “안전 Campaign이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한진해운의 효율적인 선박 운항 및 정시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고히 정착시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화물을 더욱 안전하게 운송함은 물론, 해상 환경오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세부 주요행사 △선박별 안전문화 혁신 결의대회 △선내 안전심볼, 표지, 마킹, 태그, 설비의 일체정비 △선박별 ‘안전의 날’ 행사 : 취약부분(Weak Point) 식별 및 개선활동을 전개, 전 선박과 공유 △인명안전 작업별 안전가



이드 공모 : 모음집 제작, 배포, 현업 위험예지 현업활동시 적용 등이다.

현대상선

해외영업 대폭 강화

현대상선(대표 노정익)이 아시아 신흥시장 베트남과 유럽의 관문인 이탈리아에 현지법인을 신설하고 해외영업 강화에 나섰다.

현대상선은 최근 베트남 호찌민 쉐라톤호텔에서 본사·현지 임직원과 베트남 지역 고객(하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베트남 현지법인(Hyundai Merchant Marine Vietnam) 설립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에서부터 현대상선 베트남법인 합작 파트너인 제마넵 그룹 도반년 회장 (Mr. Do Van Nahn), 베트남 호찌민 해운 항만청 레던한 부청장 (Mr. Le Doan Hanh), 현대상선 유창근 컨테이너영업본부장)

베트남 현지법인은 호찌민에 위치한 본사에서 파견한 주재원 2명과 현지 직원 35명이 베트남 각 지역 화물 수송 영업, 선적·하역, 운임 책정, 신규 고객 발굴·관리 등 제반 영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대상선은 1993년 호찌민에 현지 대리점을 개설해 베트남에 처음 진출한 후 2005년 지점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베트남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영업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자 2년 만에 지점을 법인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이번 현지법인 설립은 비용절감과 매년 20~25%씩 성장하는 베트남지역의 컨테이너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에 앞서 현대상선은 지난 7월18일 이탈리아



제노바에 이탈리아법인을 출범시키고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과 현지인 직원을 포함해 29명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이탈리아는 중·동부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 격인 지중해 지역에 위치해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증가로 점차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는 지역이다.

흥아해운

직원 승진인사 단행

흥아해운(대표 이운재 회장)은 7월1일부로 48명의 직원에 대한 승진인사와 팀장급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승진] △차장 : 김익준(기획팀), 박경식(전산팀), 박진수(보험팀), 윤철근(부산업무팀), 이종영(방콕사무소), 이창훈(수출영업팀), 전주호(탱커팀), 조성민(업무심사팀) △과장 : 강승욱(뽀뽀사무소), 박준형(울산사무소), 백근형(상해사무소), 안종인(회계팀), 이석영(공무팀) △과장대우

: 김경근(해외영업팀), 김철(부산업무팀), 김현진(전산팀), 박종석(해외영업팀), 박재한(운항팀), 성세봉(총무팀), 이동기(부산관리팀), 이재기(해사팀), 이재정(해외영업팀), 장세훈(운항팀), 정지흠(수출영업팀), 채희준(수입영업팀) △대리: 김규승(수출영업팀), 김석진(부산업무팀), 김영순(부산업무팀), 김유영(수출영업팀), 노경후(재무팀), 박인호(청도사무소), 박정욱(업무심사팀), 송주영(해사팀), 이화동(해외영업팀), 임현정(안전관리팀), 조성길(전산팀) △계장: 김은주(수출영업팀), 김태훈(기획팀), 박항순(재무팀), 빈효진(부산업무팀), 이주미(수출영업팀), 이지수(탱커팀), 이진명(컨테이너관리팀), 윤덕효(컨테이너관리팀), 임대호(전산팀), 주지희(울산사무소), 최선화(컨테이너관리팀) △4급: 박미영(재무팀).

[주재원 인사이동] △해외영업팀 안성현 대리 → 홍콩사무소.

[팀장전보 및 발령] △컨테이너관리팀장: 곽동현 차장 △총무팀장: 김광규 부장 △수입영업팀장: 오정혁 차장 △해외영업팀장: 오 흠 차장 △부산영업팀장: 여병중 차장 △기획팀장(보험팀장 겸임): 홍재선 부장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운영사에 인센티브 지급

올 하반기부터 특정 선사를 상대로 연간 10만 TEU(1TEU는 20피트 컨 1개) 이상의 환적화물을 추가 유치한 부산항 운영사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이갑숙)는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부산항 이용선사에 이어 부두 운영사에 계도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BPA) 최고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는 7월30일 제36차 항만위원회를 열고 BPA가 제출한 부산항 '퀵' 터미널 운영사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제도 도입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내년말까지 개별 계약 선사의 기준년도 대비 환적화물 증가량이 연간 10만개 이상인 운영사는 선사에 지급되는 것과는 별도로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센티브는 1차 년도의 경우 연간 30만개 미만 증가시에는 TEU당 5천원을, 30만개 이상 증가시에는 TEU당 7천원을 지급해 물량을 많이 유치한 운영사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 2차 년도는 1차 년도 증가 물량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전년도 지급액의 50%를, 전년도 증가물량을 초과할 경우 TEU당 5천원 또는 7천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정 운영사의 1, 2차년도 환적화물 증가물량이 각각 35만개와 40만개일 경우 1차 년도에는 24억5천만원(35만개×7천원)을, 2차 년도에는 15억7천5백만원(12억2천5백만원+5만개×7천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BPA는 이번 인센티브제는 선사와의 계약 주체인 부두 운영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PA는 그러나 국내항만간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항만 및 터미널간 이동 물량은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대상 물량이 50만개를 초과할 경우 운영사와 협의를 거쳐 인센티브 금액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BPA는 이날 항만위원회에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신임 황수철 사장 승인건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정관 개편 추진계획, 부산항 북항~신항간 해상 셔틀전용선 운영사 선정 결과 등을 보고했다.

인천항만공사

공사출범 2주년 기념식 거행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서정호)가 7월11일 오전 10시30분 한준규 항만위원장과 서정호 IPA 사장 등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출범 2주년 기념식은 외부행사 등 허례허식을 삼가하고 3주년을 향한 노력의 의지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임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내부행사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서정호 사장은 이날 출범 2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2년간 항만위원회를 포함해 인천시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을 도움을 받아 인천항만공사는 안정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며, 인천신항 건설 등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미래를 향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자 당부했다.

한준규 항만위원장은 출범 축사를 통해 “물동량 증대와 배후부지 개발 등 인천항만공사가 지난 2년 동안 일궈낸 성과는 놀라울 정도”라며,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노력해 간다면 황해권 최고의 교류거점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인천항의 비전을 빠른 시일 안에 달성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출범 2주년 기념식에서는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의 표창장 전수식도 함께 열렸다. 안상수 시장은 인천항만공사가 항만 활성화를 통해 인천시의 발전에 이바지 한 점을 기려 공사 우수 직원 4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문광석 전략기획팀 과장과 한신규 개발계획팀 대리, 이수아 마케팅팀 주임, 신재완 갑문운영팀 주임 등이 표창장과 부상을 받았다. 표창장은 서정호 사장이 대신 수여했다.

한국선급

유럽위원회 개최

한국선급((KR, 회장 오공균)이 유럽위원회를 통해 유럽지역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인지도를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한국선급은 지난 6월25일 런던(London Underwriting Centre)에서 오공균 회장과 전영기 기술본부장 등 한국선급 관계자와 국제해사업계를 대표하는 8명의 멤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4차 한국선급 유럽위원회(KR European Committee)를 개최하여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유럽위원회는 국제탱커선주연합회(INTERTANKO)의 사무총장 겸 한국선급 유럽위원회 의장인 Mr. Peter Swift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한국선급의 현황, 항만국 통제(PSC) 지적 및 해난에 대비한 사전 예방조치, 협약 전산화 프로그램인 KR-CON에 대한 소개와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 되고 있는 목표기반 신조선 구조기준(Goal-based new ship construction standards: GBS)에 대한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INTERCARGO에서 발표한 2006년도 한국선급 등록 Bulk선박에 대한 PSC실적 결과 한국선급이 최고 수준에 있음에 대하여 위원들이 만족을 표시하고 새로 구성된 한국선급 임원진에 대한 축하와 함께 기대를 표명했다.

한국선급은 2004년부터 매년 런던에서 개최해 오고 있는 유럽위원회를 통해 유럽 해운업계에 한국선급의 현황 및 기술력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국제적 인지도를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체험수상안전교육 개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박찬조)은 부산응급의료정보센터, 부산YMCA와 공동으로 '선원가족과 일반시민이 함께하는 체험수상안전교육'을 개최했다.

7월22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체험수상안전교육은 2006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 되었으며 일반시민 300여명과 강사 및 봉사단 100여명이 참여했다.

체험수상안전교육에서는 수영장, 바닷가 등에서 물놀이를 할 때 그 위험성을 알리고 익사사고 예방 및 익수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실습하였다.

또한 연수원 교관 및 자원봉사자의 진행에 따라 수상안전교육 외에 소화교육, 완강기 하강 교육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도 함께 이루어졌다.

선원가족과 일반시민이 함께하는 체험수상안전교육은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에게는 수상안전교육 기본과정 이수 수료증도 교부했다.

